

세션 12: 신명기 27-30

Dr. Cynthia Parker

신시아 파커 박사님과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12과, 신명기 27-30입니다.

소개 및 종주국-속국 조약

우리는 27장에서 30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인 신명기의 큰 그림 안에 넣기 위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는 구성되는 신명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종주국-가신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된 히타이트와 아시리아 조약의 기본 일반 레이아웃과 그들이 신명기의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음, 그 조약의 일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항, 규정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법전 12장에서 26장까지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과 저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가신이 조약에 복종하거나, 조약을 깨고 반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한 그 법률 구조의 일부는 언약 비준 또는 언약을 다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매년 때때로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 성약을 반복하고 이 성약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또한 이 장들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혼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27장과 28장으로 올라가서 29장과 30장으로 갈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그래서 우리는 27권에서 책의 구조인 흐름에 약간의 단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26장에서 28장으로 직접 읽는다면 훨씬 더 원활할 것입니다. 이 두 장 모두에서 모세가 주요 화자로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27장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2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에 큰 돌을 세우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환했고, 우리는 이 3인칭에 있습니다. 챕터의 이 부분에서 꽤 명백해 보이는 것은 편집자의 손입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하여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른 그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건너갈 때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젖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꿀은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니라."

그래서 2절에서 잠시 멈추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그 날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자마자, 너희 발이 땅에 닿자마자,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이 말을 쓰라 요단강 건너편 마른 땅에 발을 디디는 즉시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에 이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에 에발 산에 이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 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 의식이 일어날 것임을 인식합니다. 음, 에발은 좋은 하루, 하루 반 여행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역사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싸워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간의 소금으로 이 시간 프레임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선 순위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바로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언약을 비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회반죽을 발라야 합니까? 아마도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발과 그리심의 돌이 없습니다. 이 특정 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큰 돌이 발견된 땅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예로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 큰 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때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사진 속의 사람들을 그들 뒤에 있는 큰 돌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특별한 의식을 위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돌의 유형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큰 돌을 세워라.

자, 왜 돌입니까?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진 속의 돌이 풍경에서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눈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어다니면서 그 크기의 돌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에게 아주 좋은 기억 마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이 가르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석고로 쓰여진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단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기록된 이 가르침은 또한 이 말의 지속적인 권위를 내포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 돌 위에 글을 쓰세요.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돌에 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함무라비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의 모든 법칙이 적힌 매우 큰 스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는 신명기에 있는 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전체가 그 별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2시부터 26시까지의 법전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요점을 얻습니다. 가서 지평선 너머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엇인가, 이 가르침의 말씀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권위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다시 본문 4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요단을 건널 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또 거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로 제단을 쌓되 그 위에 철 연장을 가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릴지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축하 행사가 진정으로 축제, 절기 및 축제라는 힌트 중 하나를 얻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편집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장로들은 다시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느니라”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말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시내산은 언약을 주신 최초의 산이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서 있는 모세와 장로들이 이르되 네가 오늘이 되었도다 하고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동편에서 언약 비준식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게 하였느니라 요르단의.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에발과 그리심에 이르면 다시 한 번 그 언약을 확정할 것이요 그 날에 이루리라 그들이 전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성약을 가지고 미래에도 기억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이 백성들의 머리 속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발과 그리심에 대한 언약 비준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그 날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에 그들이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할 것이요 그들이 행할 저주를 위하여 여섯 지파를 열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발과 그리심과 나는 이전에 신명기 11장을 이야기할 때 에발과 그리심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과 그리심을 지날 때마다 그리심 산의 축복과 에발 산의 저주를 기억하는 그들의 땅에 시각적인 것을 갖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새깁니다 .

신명기 28-29

26장에 이르면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장의 끝은 우리에게 저주만 줍니다. 그래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으로 건너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우리는 28장과 29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지만 약속과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저주 중 많은 부분이 농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땅, 즉 이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축복이 그들의 땅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놀라운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직되어 있는 일종의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에덴이 땅을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땅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잠재력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땅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모두 조화롭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신명기의 그림을 연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이르렀을 때 땅이 축복과 저주를 모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땅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땅이 보살핌을 받아 풍요로워지고, 사회와 장소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날 때는 땅도 그것을 본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이런 측면, 자연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에 여전히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4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기억한다면 그 땅은 모든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한다면 이 강의 시리즈의 시작 부분에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들어가고 주변국의 모든 교역로가 이 땅을 통과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 무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에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그들 주위의 종족들에 의해 주목된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세계관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이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축복과 저주라는 두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축복과 저주는 28장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같은 것입니다. .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 반죽하는 대접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것들은 축복의 좋은 예이므로 바로 축복입니다.

저주는 어떻습니까? 음, 16절에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시골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반죽하는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소산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밭과 네 소의 새끼와 네 양의 새끼로다" 당신은 긍정적인 것과 정확한 부정적인 것, 축복과 저주를 봅니다.

약속과 위협

글쎄,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약속과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축복과 저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곳간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도를 행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듣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당신에게 오는 축복이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아차릴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치던 나라들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 반면에 위협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맹렬한 열기와 칼과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쫓아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닢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네 땅에 비와 티끌을 내리시리니” 그러므로 11장에서 하나님은 늦은비에 이른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땅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가 보류됩니다.

"그 재앙이 네게 임하여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은 그들을 치러 나가고 그 앞에서는 일곱 길로 도망하리니 네가 그들의 본이 되리라 땅의 모든 왕국에 공포가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와 마찬가지로 약속과 위협도 농업의 형태로 옵니다. 그들의 자리가 축복을 받거나 그들의 자리가 산산조각 나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열방에 대한 모범의 형태로 옵니다. 그들은 본보기로 세워진 나라들과 전쟁을 벌일 때 승리하거나, 그 나라들, 다음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예언자들이 이 법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은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를 마음의 최전선에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뿐만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신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주

시작하면서 건너뛰고 28장 맨 끝 부분을 조금 읽은 다음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네가

진멸되기까지 너를 추격하고 미치리니 네가 범하지 아니하였은즉 그것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과 기사가 되리라 모든 것이 풍족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므로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되리라 그가 너를 멸하기까지 네 목에 철 노른자를 두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47절과 48절의 두 구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면 결국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 사이의 대조를 얻습니다.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세어보면 저주 부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일대일 평등이 없습니다. 저주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강조는 잠재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신명기 29장 - 비준식 - 역사 다시 말하기

29장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제 이 비준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땅주인뿐만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대표가 아닙니다. 전체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명기가 책 전체를 통해 인식한 것처럼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9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의 대조와 포로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29장 에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 소집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이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 큰 표적과 큰 시험을 너희 눈이 보았느니라 경이로움.”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친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 일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뒤돌아보며 말한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너희에게 아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으되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신이 발에 닳았어." 그래서 다시 신명기 8장을 참조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기 위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곳에 이르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이 우리와 싸우러 나오매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그들에게 행하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들이 우리가 신명기의 첫 장에서 본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기 시작하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역사를 다시 말하면서 이 좋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식

그래서 10절에 “너희의 족장들과 지파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희 자녀와 아내와 나그네 와 너희 진영 안에 있는 자 곧 너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너희 물을 길어 오는 자까지니 이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으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세우신 맹세이니 그리하면 그가 오늘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내가 이 언약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 여기 아직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로 맹세하노라 하니라 따라서 미래 세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충실할 수 있고 그들이 불충실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평행선

그래서 22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온 땅은 유향과 소금이요 불붙는 황무지라 께매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거기에 풀이 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으며 어찌하여 이같이 크게 분노하며 분을 내느냐 하리라

따라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이 와서 보게 될 훨씬 더 큰 국제 무대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와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방식을 보는 대신에 그들은 와서 유향과 소금의 땅인 파괴된 땅을 봅니다. 그래서 유향과 소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정반대입니다. 비생산적인 땅입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땅이 되어야 할 이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도 꽤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과 그 이후의 다른 장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활동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자세히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압제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때로는 성적인 죄를 연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국민을 탄압하고,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압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앞에서 압제를 받았을 때의 부르짖음과 같이 높아졌도다 따라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고 풍요로워야 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갈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것이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준 이 땅도 그들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희망찬 결론 - 신명기 30장

신명기가 여기서 29장으로 끝난다면 정말 서글픈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절망적이며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선지자들처럼 그들은 항상 가까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표가 있지만 다가올 소망이 있고 30장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30장을 볼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두 구절에서 우리는 회개, 돌이킴, 회복이라는 이 단어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선지서를 통해서 맨 마지막까지 신약성경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입니다.

마음의 할레

마음의 할레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살펴보았고, 신명기 10장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겸손하기 위해 마음에 할레를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할레를 베푸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돌의 마음 대신 살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권은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30장을 1절부터 읽으십시오. “내가 네 앞에 둔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는 이러하리라.” 히브리어

단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틀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인식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 된 중에서 돌이키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여기에는 예레미야 3장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너희 쫓겨난 자들이 땅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너무 먼 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이 회복을 제공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 주어 우리로 관찰하게 하며 또 너희가

말할 바다 저편도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실제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술사나 주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신비를 당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찾아가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주는 이 장소에서 인류가 생존하고
성취되는 방법에 대한 그의 법,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가장 큰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신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눈앞에
가시적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선택

그래서 14절에 있습니다. 글쎄, 그건 내 번역이고, 나는 당신의 번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히브리어는 "내가 오늘 생명과 선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라"입니다.

아니요, 이것들은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제시되는 이 선과 악의 선택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할 때, 아마도 단지, 어쩌면 당신의 마음 뒤에서 메아리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창세기 연결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과 악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졌던 동산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 들어갈 때 여기 입구에 있는 사람들도 선택권이 있으며, 그들에게 선한 생명을 주거나 죽음과 악을 주는 것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죽음과 악, 육체적인 죽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뿌리내린 곳에서 추방당한 유배자를 통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노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번성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간 땅에서.”

증인 소환

이제 19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는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증인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생명과 네가 거할 날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땅의 가장자리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마치고 들어가서 예발과 그리심에 대한 의식, 축복과 저주, 신명기가 아는 인식은 그들이 아마 떠날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가능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삶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가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시아 파커 박사와 신명기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12과, 신명기 27-30입니다.